

팀NO : 2019-006

2019 단기선교팀 신청서

2

선교위원회 확인

국가팀명 몰도바 1팀

공항 키시너우 국제공항 *항공권구매: (자율, 교회)

사역지 : 키시너우

사역기간 : 20 19 년 05 월 28 일(화) ~ 06월 05일 (수) / (8)박(9)일

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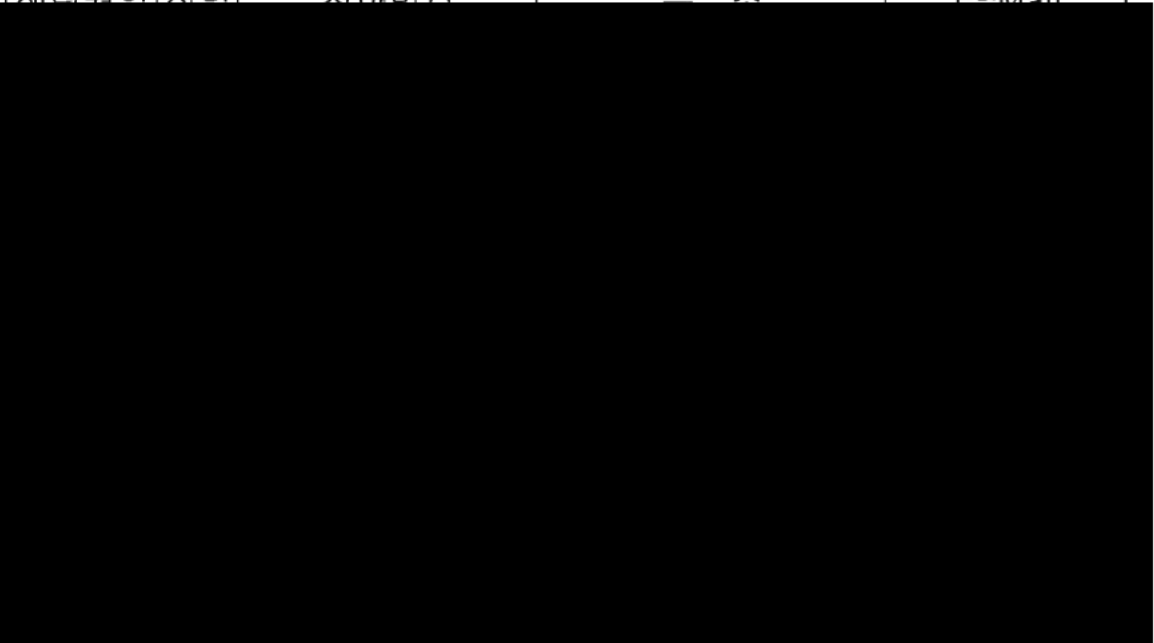
지도목사

위원장

[Handwritten signature]

[Handwritten signature]

[Handwritten signature]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팀장	권사	이율의	Yuleui Lee	1	무	93-1054					
총무	권사	강신순	Kang, Sin Sun	1	직무	86-126					
서기	집사	오지은	Oh Jieun	1	유	110008					
회계	권사	송정희	Song Jeong Hee	1	무	86-24					
의료	권사	고금신	Ko Geum Shin	12	유	91-179					
부서기	권사	양순옥	Yang Soon Ok	9	무	81-312					
부회계	권사	조옥자	Jo Og Ja	12	무	83-421					
아동사역	권사	이기순	Lee Gi Sun	15	무	2005-023					
찬양	권사	노순옥	Ro Soon Ock	1	무	85-793					
찬양	권사	손선례	Son Sun Rae	14	무	94-718					

I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담당

분과장

3/3
함수안

3/10
정재명

선교 소감문

몰도바1팀 (12교구, 고금신 권사)

몰도바 선교는 처음이라 설렘과 기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준비했다.

금번 선교팀은 특이하게 은퇴 권사님 4명 포함 10명이 기도하면서 나아갔다. 젊은이들 못지않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열정과 반석 위에 든든한 믿음의 용사들이 함께해서 참으로 기쁘고 성령이 충만한 선교였다.

각 지체들의 은사대로 서로를 주님 안에서 배려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 센트럴파크 공원에서의 전도도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사역이었으며, 놀랍게도 금요일 오후 고아원 방문 시 아픈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합심기도로 인해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으며, 그 여인의 눈가에 맺힌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며 모든 팀원들이 감동했는데 주일에는 환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였다. 주님은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멀리 주님의 사신이 되어 전도자의 일을 하는 선교팀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 바로 이것이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무엇보다 주일예배에 충만히 임재하신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며 하늘이 열리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 전율감을 맛보았다.

온 맘을 다해 주님을 향한 찬양과 율동, 그리고 깊은 심령에서 눈물이 흐르는 뜨거운 영의 기도와 주님의 종을 통한 말씀선포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충만한 주일예배였다.

특히 몰도바 현지 금요일 오후 고아원에서의 치유 기도회와 현지 10시 주일 예배는 한국에서 각각 금요집회 기도 시간과 주일 4시 CIS, 몰도바 집중기도회 시간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뜨거웠던 역사는 국내 총현교회의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합심하여 드린 중보기도가 너무나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에서 가져간 온갖 양념을 이용하여 주일 예배를 마치고 맛있는 잡채와 샐러드를 만들어 주일예배에 참석한 몰도바 성도들을 섬기시는 몰도바 선교팀원들의 손길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다.

주일 오후 6시에는 청년들의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순수한 몰도바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키워지고 있음에 감사드렸고 이 시간 또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스테판 목사님은 사모님, 세 딸과 사위들까지 하나가 되어 은혜연합교회를 섬기시는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뜨겁게 느껴졌다.

이 모든 사역들이 주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몰도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동늘 써 버 비네쿠빈떼제 (주님이 축복하시길)

몰도바 선교 1팀 소감문

1교구 강신순 권사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팀은 연합팀으로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셨고 각자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선교 훈련에 임했습니다. 제한된 상황에서도 언어훈련을 서로 협력하며 더욱 열심을 했었습니다.

긴 시간 비행을 하고 몰도바에 도착했지만 팀원들은 바로 각자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삼삼오오 앉아있는 몰도바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몰도바인들은 비교적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우리팀원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각자의 달라트를 잘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테반 목사님과 시내에서 1시간 이상 들어가는 시골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자기의 육체적 아픔을 위해 기도받기를 원했고 우리 대원들은 한마음으로 그여인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한 우리의 긍휼의 마음과 애통함, 그리고 그 여인의 병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에 주님이 응답하심을 느꼈습니다.

주일에는 군사전시관 한켠을 빌려 예배드리는 곳에 몰도바인들이 60~70명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시작 1시간 전부터 찬양과 율동으로 한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주님이 그 곳에 임하셔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짐을 느꼈습니다. 그곳에 모인 귀한 몰도바인들의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좋은 교회가 지어져서 예배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릴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10명의 십자가 정병들이 한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귀한 사역에 동참시켜주신 주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목도마 / 린

양승우



선교 하면 항상 처음부터 시작하고 새롭게 준비하게 된다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

누군가가 전해야 된다면 그들보다 조금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신 나로 가게 하소서

주님! 물가지고 씻든지 물가지고 태우든지 내안과 밖 정결케 씻고 다듬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하며 준비했고... 그들도 수확과 열매의 향연으로 주님만

알고 있었을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알려줄까? 그만이 되셨지만... 정말 다양한

위해 필요한 이런 도구를 첨가하겠다는 성경의 말씀으로 먼저 예수님의 심정을 주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현지에 가서 보니 언어도

서툴고 알람 하기가... 그와 그것도 장사꾼, 선교사의 안과와 김정원의 영이

동행으로 개화고... 화상들에게 또 노방전도, 개개 호호 방문전도, 그러는 이투스(예수전도)

하여 열심히 전했다 우리도 이영실이 오직예수에게만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의 무리안에 가서 화상들의 형상을 미화하고 주님으로 하는 간절함도 있었다.

우리의 전도를 거절하는 영혼도 있었지만 그중에는 화상의 탁월함도 있었다

그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율령도 하며 아름다운 발투로 바쁘게 전하고 책도 주고-

이로써 빛의장 안되는 책이지만 그들이 되어보고 한걸음의 빛이 되어 활짝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며 많은 열매 맺히는 소망해 본다

그곳 은혜안약교회 예배가 청년들의 집회로 참석해서 보고 듣고 느끼며 감사했다

청년들의 밝은 모습, 열정적으로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을 전하며 나간때 느꼈었고 안정감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곳이 예수님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타전으로 고침 받으리라 믿어 의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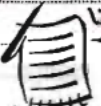
않으며... 끝으로, 이 모든 과정을 김장원의 수확한 영어동역으로 알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김장원의 건강을 위해 식사준비를 해주신 천사님들! 또 최문실 아나임고 주님께 감사

합니다! 이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목도마 / 린, 김장원까지도 김장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저를 아는 다시 한번 고백해 본다.

"나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갑니다"





"소감문"

플드바 1회 송정리

• 이번 선교는 연합회로 구성된 플드바라는 편식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여자들만 힘있게 구성된 70세가 넘는 문인들이 4분이나
기쁘게 걱정이 되지만 젊은 노래 보다 더 열정적으로
수업을 감당하시는 모습에 감동 그 자체였다

• 오래된 목사님들 심지어 교회에 '순례'한 것도, 이런 주일에만 입대하신 예배를
드린 게 있었는데 주일 70여명 성도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듣고 정말 뜨겁게(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오후엔 젊은이들이 30여명 따로 예배가 있었는데 찬양기수인 것 같았다
정말 수서하고 해맑게 보았다 비현이 웃어 보였다.

• 14년 전부터 1시간 20분정도 씩이진 곳의 가정교사가 있었는데
고아원 사목목회자 시절다 80여살도 안걸 갓났다
고아원을 크게 선택해 주셨다

• 여기서 형제들의 목사로 임명되었다. 현역의 목사님 고아원성도 모두 성령충만 은혜의
장미 되었다

• 14년 크리켓이 대학에서 복음은 전했다
현역에서 수서하고 복음은 전 받아 드렸다.

• 또 여가생활 행사는 밤잠을 아주 생애하게 하여 많은 이쁜이와 무모들로
인생은 이루어졌다

수업은 거기서 마음껏 웃고 찬양으로 댄스 전도지를 복음은
전했다 감동이였다

이번 선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선교였길 좋아 감사할 뿐이다

몰도바 1팀 선교 소감문

기간: 2019년 5월 28일(화) ~ 6월 5일(수)

사역지: Grace Covenant Church (스테판 목사)

몰도바 키시너우

931054 이율의 권사

하나님께서 우리도 들어 쓰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기치 않게 팀장 임무를 감당하게 된 내 손에 들어온 팀원 명단은 모두 열 명의 여성, 그리고 그 중 4명이 70대, 그리고 60대 후반 1명 그리고 모두는 60대에 곧 진입할 50대 후반이었다. 우리 열 명의 팀원들은 팀 훈련을 하면서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 섬기는 자세를 키워 갔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역을 감당할 수는 있으려니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몰도바의 스테판 목사님이 혹 우리를 보시고 놀라실 까 하여 나는 팀원 명단과 연령을 이메일로 적어 보내었고, 팀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도 두 번 보내드리면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계획하시게 하였다.

그러나 정작 몰도바에 도착한 우리 팀원들은 첫 날 사역에 나가서부터 완전히 몰도바 사람들을 압도하였다. 모두 유니폼을 입고, 공원을 찾아가 삼삼오오 앉아 있는 현지인들에게 다가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또 한 데 모여 찬양과 율동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 와 동영상도 찍고, 우리의 권유에 학생들까지도 합류 같이 율동과 찬양을 하였다. 농촌 마을 축회 전도할 때는 러시아 정교를 믿어 모두 예수님을 안다고 답하는 그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목사님의 교회를 소개하였다.

6월 1일은 몰도바 어린이 날이다. 스테판 목사님 교회(Grace Covenant Church)는 6월 9일 어린이 초청 잔치를 계획하고 있어서 우리는 어린이날 공원에 나온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전하는 일을 하였다. 이 곳 사람들은 신명이 많은 사람들인지 음악이 나오면 둘러서서 춤을 추고 있었다. 우리 팀원들은 즉각 이 틈에 끼어 춤을 추면서 이들과 소통을 하였고, 그 후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 들 생각에도 하나님이 잘 한다 하실 것 같았다.

스테판 목사님은 Nicolaieuca라는 마을에 교회를 하나 열고 계셨다.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시내에서 버스로 1시간 20분 정도 달려서 이 마을 교회에 와서 그 곳 성도 10여 명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어떤 40대 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몸이 불편하여 움직일 수 없다고 우리들의 기도를 받기 원한다고 하였다. 우리 팀원 중 몸 관리 전문가인 오지은 집사가 이분의 몸을 만지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고, 나머지 팀원 모두 중보 기도를 하였다.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눈물로 기도하였고, 목사님을 비롯하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울며 기도하였다. 그 후 그 여인은 주일 키시너우 교회 예배에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우리에게 감사하였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몰도바인들은 부드럽고 감정도 풍부한 편이어서 예배도 설교 시작 전 약 한 시간 정도는 찬양하고 춤을 추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할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여 주었다. 국립 군사 박물관 한 층을 빌려 주일에 예배 만 보며 월세 \$600를 내는 작은 교회, 비품은 아무 것도 없어서 삭막하기까지 한 이 넓은 방을 이 성도들은 뜨거운 찬양과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들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일 저녁에는 이 곳 예배당에서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였다. 안 믿는 학생들이 다수 포함된 이 예배에는 약 3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었다. 때가 마침 학기를 마치고 방학에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인지 그들은 어떻게 하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코메디 촌극을 한 후 그룹 토의를 통하여 도출한 코믹한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청년 부 지도 집사가 야고보서 1장 12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였다. 설교 전 도입부로 재미있는 설정이라 생각되었다. 예배 후 활동으로 우리는 천지 창조 스토리를 소개하고,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들을 기억하여 그림을 찾아 판넬에 붙이는 활동을 하였다. 대학생들이라도 잘 참여하였고, 재미있어 하였다. 목사님이 이런 자료를 구하고 싶어 하셔서 우리가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우리는 목사님 댁 부엌을 빌려서 잡채와 샐러드를 만들어 주일 예배 후 참석한 70여명의 몰도바 교인들에게 대접을 하였는데 모두 맛있다고 잘 먹어서 기뻐다. 돌아오는 날은 목사님께서 우리들을 몰도바 와이너리에 데리고 가 구경시켜주셨고, 또 댁으로 우리들을 초대하여 사모님께서 밥과 상추쌈, 한국 음식 맛을 내어 샐러드, 치킨 등 진수성찬을 차려 주셔서 마음껏 먹고, 목사님과 더불어 사역 평가회 및 종료 예배를 드렸다.

목사님은 우리들이 몰도바 젊은이들보다 더 왕성하게 더 열심히 사역하였다고 칭찬하셨고, 충현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데에 대하여 감사하셨다. 그리고 모든 도움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이니 계속 기도해줄 것을 당부하셨다. 공항까지 배웅 나온 목사님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우리 팀원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한국에 돌아가면 목사님과 그 가족과 교회를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할 것과 내년에도 다시 올 것을 다짐하고 있었다.